

재미교포 존 허 '코리안드림' 이뤘다

신한동해오픈서 고국무대 첫 승

최경주 2위, 박은신·배상문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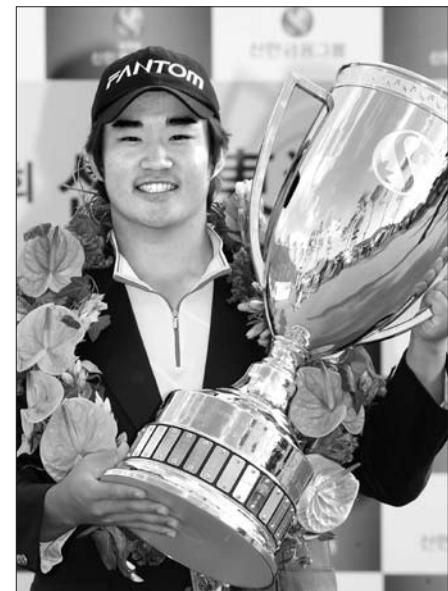
재미교포 존 허(20·팬텀)가 한국프로골프 투어(KGT) 신한동해오픈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

존 허는 3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낙코스(파72·754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유연한 스윙과 침착한 플레이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끓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적어낸 존 허는 웹豌豆언조에서 우승에 죽어온 최경주(40·9언더파 279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한국 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억6000만원을 받았다.

뉴욕에서 태어난 존 허는 2009년 2월 외국 인선수 컬리파인스클럽을 통과해 한국 투어에 합류했다. 한국 이름은 허찬수.

3라운드 공동 선두 최경주와 배상문(24·끼)



움증권)에 3타 뒤진 채 마지막 리운드를 시작한 존 허는 3번홀(파3)에서 벙커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버디의 물고리를 끊었다. 6번홀과 9번홀(이상 파5)에서도 1타씩을 줄이며 전반을 마친 존 허는 11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웹豌豆언조에서 배상문, 박은신(20·삼화저축은행)과 선두 다툼을 벌이던 최경주는 13번홀(파4)에서 티샷을 오른쪽 경기 구역 밖으로 날려 버린 뒤 트리플 보기를 적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 사이 존 허는 14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오려 가볍게 버디를 잡아내며 순식간에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다. 존 허는 남은 홀에서 몇처에 위기를 잘 넘기다 18번홀(파4)에서 4라운드 첫 보기를 적어내 불안감이 드리웠지만 1타차로 쫓아오던 최경주가 마지막 홀에서 1타를 잃는 바람에 2타차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 대회 최다 우승 타이인 3회 우승을 노렸던 최경주는 2위에 머물렀고 박은신, 배상문은 8언더파 280타로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과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한편 초청선수로 출전한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가 공동 20위(2언더파 286타),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는 공동 39위(2오버파 290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女 검객의 '머리치기'

3일 광주시 서구 서석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0회 광주시장기 검도대회 여자부 경기에서 윤지현(진월검도관·오른쪽)이 강태희(진성관)에게 '머리치기' 공격을 하고 있다. 광주시 검도 회(회장 최용훈)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모두 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초등 저학년·도장단체전 등 17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라이더컵 '환상 호흡' 우즈·스트리커 美에 2승

타이거 우즈와 스티브 스트리커가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에서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미국팀에 2승을 선사했다.

우즈와 스트리커는 3일(한국시간) 새벽 웨일스 뉴포트의 셀틱 매너 골프장(파71·7378야드)에서 열린 대회 둘째날 포볼 경기에서 이언 폴터-로스 피셔(이상 임글랜드) 조를 2홀차로, 포섬 경기에서는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페테르 한손(스웨덴) 조를 4홀차로 잇따라 꺾었다.

우즈는 포볼 경기에서 버디 2개를, 스트리커는 버디 3개를 잡아 버디 2개에 그친 폴터-피셔 조를 압도했다.

이어진 포섬 경기에서는 우즈가 아이언샷으로 볼을 홀에 불이면 스트리커가 정교한 퍼트로 홀에 속속 집어넣어 버디 6개를 합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믿었던 필 미켈슨-더스틴 존슨 조는 포섬 경기에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마틴 카이머(독일) 조에, 포볼 경기에서는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피셔 조에 각각 3홀차로 완패, 승점을 몰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우즈와 스트리커는 최강의 커플임을 입증하며 미국이 승점 6(5승2무3패)를 따내며 유럽(승점 4)의 기선을 제압하는데 앞장 섰다. 우즈와 스트리커 커플은 프레지던츠컵을 포함해 6전 전승을 올렸다. 시즌 내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즈는 포볼 경기 세번째 주자로 나서 자존심이 상할만도 했지만 스트리커와 호흡 맞춰 경기를 주도해 나갔다.

우즈는 포볼 경기에서 버디 2개를, 스트리커는 버디 3개를 잡아 버디 2개에 그친 폴터-피셔 조를 압도했다.

이어진 포섬 경기에서는 우즈가 아이언샷으로 볼을 홀에 불이면 스트리커가 정교한 퍼트로 홀에 속속 집어넣어 버디 6개를 합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믿었던 필 미켈슨-더스틴 존슨 조는 포섬 경기에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마틴 카이머(독일) 조에, 포볼 경기에서는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피셔 조에 각각 3홀차로 완패, 승점을 몰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우즈와 스트리커는 최강의 커플임을 입증하며 미국이 승점 6(5승2무3패)를 따내며 유럽(승점 4)의 기선을 제압하는데 앞장 섰다. 우즈와 스트리커 커플은 프레지던츠컵을 포함해 6전 전승을 올렸다. 시즌 내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즈는 포볼 경기 세번째 주자로 나서 자존심이 상할만도 했지만 스트리커와 호흡 맞춰 경기를 주도해 나갔다.

우즈는 포볼 경기에서 버디 2개를, 스트리커는 버디 3개를 잡아 버디 2개에 그친 폴터-피셔 조를 압도했다.

이어진 포섬 경기에서는 우즈가 아이언샷으로 볼을 홀에 불이면 스트리커가 정교한 퍼트로 홀에 속속 집어넣어 버디 6개를 합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믿었던 필 미켈슨-더스틴 존슨 조는 포섬 경기에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마틴 카이머(독일) 조에, 포볼 경기에서는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피셔 조에 각각 3홀차로 완패, 승점을 몰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우즈와 스트리커는 최강의 커플임을 입증하며 미국이 승점 6(5승2무3패)를 따내며 유럽(승점 4)의 기선을 제압하는데 앞장 섰다. 우즈와 스트리커 커플은 프레지던츠컵을 포함해 6전 전승을 올렸다. 시즌 내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즈는 포볼 경기 세번째 주자로 나서 자존심이 상할만도 했지만 스트리커와 호흡 맞춰 경기를 주도해 나갔다.

우즈는 포볼 경기에서 버디 2개를, 스트리커는 버디 3개를 잡아 버디 2개에 그친 폴터-피셔 조를 압도했다.

이어진 포섬 경기에서는 우즈가 아이언샷으로 볼을 홀에 불이면 스트리커가 정교한 퍼트로 홀에 속속 집어넣어 버디 6개를 합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믿었던 필 미켈슨-더스틴 존슨 조는 포섬 경기에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마틴 카이머(독일) 조에, 포볼 경기에서는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피셔 조에 각각 3홀차로 완패, 승점을 몰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골프공 껍데기 벗겨 샷?’

스크린골프대회 부정행위 방지대책 고침

“주말 골퍼인데 비거리가 400m나 된다구요?” 골프장이 아닌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골프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적지 않은 상금을 내건 스크린골프대회가 연중 열리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부정한 방법이 등장하면서 대회를 주최하는 업체들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다수 스크린골프대회 예선전은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이른바 ‘골프방’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경기를 한 뒤 스코어

를 등록하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열리는 일반 대회처럼 경기위원이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약점을 이용한 부정행위 중의 하나가 골프공의 껍데기로 벗겨 합성고무로 둘러싸인 ‘코야’로 샷을 하는 방법이다.

골프공의 표면에 만들어진 딥풀은 골프채로 타격하면 공기의 저항을 줄여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를 낸다. 골프공에 딥풀이 없다면 골퍼들이 50m도 보내기 힘

들지만 스크린골프에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스크린골프 장비는 골프공의 타격 순간 스피드로 비거리와 계산하기 때문에 껍데기로 벗겨진 코어를 타격하면 합성고무의 탄력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려보낸 것으로 측정된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6년부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해온 골프존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은 예선전에서는 매년 2~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경기위원들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참가자의 실제 경기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정행위는 ‘부정선수’다. 여자부 대회에 남자가 대신 경기에 나서거나 프로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대신 삼을 하는 경우다. 200